

문화

마을 아낙들이 이끈 진도 '민요 노래방'

“우리 것 지키자” 남도 전통문화 맥 이어
10년전 개설, 공동체문화 부활 계기

전 남 진도만큼 땅 이름과 현실이 맞
아떨어지는 고장도 드물다. 진도를
남도 전통문화의 ‘보배로운 섬’이
라고 표현하는 데 주저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진도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말라”
는 속담이 있을 만큼 진도 소리는 예로부터
인정받아왔다. 그 예향 진도가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노래방 현상을 새삼 돌아보게
하고 있다. 10년전 진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요 노래방이 우리 소
리의 맥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 읍내에서 차를 타고 서남쪽으로 20
분 가량 달리면 지산면 소포리가 나타난다.
이 마을에 민요 노래방이 있다. 지난 83년
마을 아낙이 중심이 되어 문을 연 이 노래
방은,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주
체성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85쪽
상자 기사 참조).

92년 4월 현재 인구가 7백33명인 이 마
울은 소금 만드는 일이 주업이었는데, 13년
전 마을 앞바다에 소포 방조제가 축조된 이
후 논농사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노래방은
농한기인 겨울철에 열린다. 동짓달 그믐부
터 정월까지 매일 저녁 7시 무렵이면 마을
아낙들이 한남업씨(60)의 별채 가운데 방
으로 모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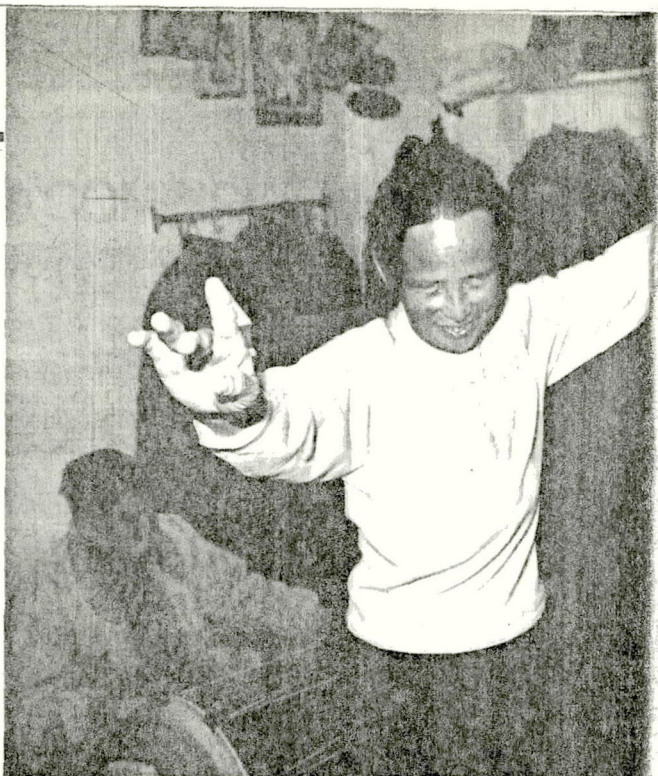
노래방 ‘선생’은 83세 할아버지

김 양식장에서 파래를 따다가 온 아낙, 공
사장 작업을 마치고 온 아낙, 굴 캐다 온 아
낙, 대파밭을 둘러보고 온 아낙, 구기자 말리
다가 온 아낙이 마을 길을 돌아 노래방을 찾
는다. 구경은 외지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김
홍연 할아버지(83)를 비롯한 마을 아낙 10여
명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돌아가며 단가
로 목을 가다듬는다.

“고나아안~ 해에에에~/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 가지에 앉지를 말
아라...” 소리가 잠시 끊기자
좌장인 김홍연 할아버지가 북
을 치며 호통을 친다. “아 시합
에 나장 거 아닝께 하나씩들 다
혀”. 곧 소리가 이어진다. “고나
아안~ 해에에에~/인제나 알뜰한 님을 만
나서/긴 밤 자불꺼나//고나아안~ 해에에에
~/내 정은 청산이요/님의 정은 녹수로구나
/녹수야 흐르건만/청산이야 변할소나/녹수
가 청산을 못잊어/빙빙 감돌아 간다...” 마디
사이사이로 추임새가 ‘얼씨구’ ‘그렇지’ 하며
끼여든다. 마을 사람은 소리로 하나가 되어간
다. 소리는 “유달산~ 상상봉에~”에 이르러
중중모리 장단으로 급박해진다.

장고잡이 조추환씨(62)의 이마에 얹은 땀
이 번지고, 소리가 어지간히 달아오르자 막걸
리 사발이 돌려진다. 한 아낙이 “진작에 그럴
것이제”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소리판은 잠시
땀고 왁자한 농지거리가 방안에 가득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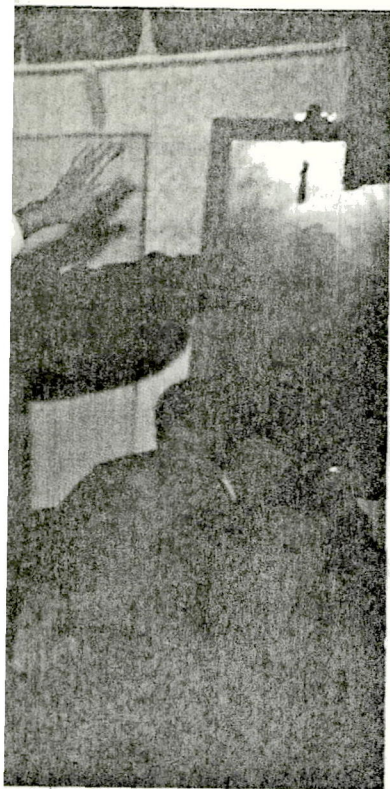


언젠가 노래방에서 달걀 두 줄을 슬쩍했던
한 남정네의 잘잘못이 아낙에 의해 가려지기도
한다.

다시 판은 중머리로 넘어간다. “등당에 덩
~ 등당에 덩~/덩기 등당에~ 등당에 덩 ~
/숨보선 숨보선/애광목에 숨보선/네 줄줄 모
르면 말일이제/등잔에 촛꼭지/생고생 시킨
다/덩기 등당에 등당에덩//동호박 동호박 /
동새넘어 동호박/은장도 드는 칼로/닐리
꼭지를/나르려 썰어/가만히 넘겨라...” 남녀
간 사랑의 애뜻함을 노래한 ‘등당에 타령’은
남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노래이
다. 이어 진도 민요의 백미인 진도 아리랑이
시작되자 누구랄 것도 없이 일어나 덩실덩실



“진도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말라”: 진도 사람의 일 속에는 노래가 들어 있다.



이것이 진도 소리 : 노래방 '선생'인 김홍연옹이 복채를 잡고 장고잡이 조추환씨에게 복을 가르치고 있다(위). 막걸리 사발이 둘러지고 진도 민요의 백미인 진도 아리랑이 시작되자 노래방에 도인 마을 아낙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일어나 덩실 덩실 춤을 춘다(왼쪽).

춤을 춘다. 소리와 춤이 어우러지면서 소리판은 신명판으로 옮겨간다. 소리와 춤의 경계가 사라지고 주인과 손님, 너와 나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신명 하나로써 어우러진다.

“아이고 뻔쳐라”라고 누가 소리치자 판은 잦아들고 소포리의 밤은 꽤 이속해져 있었다. 진양조 단가로 소리판을 갈무리하고 나서야 노래방은 쉼정해졌다.

소포리란 마을은 임진왜란 무렵에 생겼고 소포 방조제가 세워지던 13년 전까지 이 마을은 천일제염을 주로 했다. 염전 마을은 탄광촌과 닮은 데가 있어서 ‘철새’(일꾼)들이 한철을 겨냥해 드나들었고, 소금 농사에 따라 ‘들천냥 날천냥’하면서 호기와 가난이 교

차했었다. 보리 고구마 담배 목화를 심던 농사가 김과 대파(진도 대파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로 작물이 바뀐 것은 70년대부터였고, 최근에 이르러 유자 구기자 돌김 진도홍주 같은 특산물을 내놓고 있다.

진도에서 알아주던 풍물과 당굿

방조제의 완공으로 농촌사가 가능하게 됐지만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하기는 여느 농촌과 다를 게 없다.

노래방은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 당골내였던 정제심씨와 아낙네들이 10여년 넘게 호상제를 꾸려왔다. 10년 전 호

상제가 일단 끝나게 되자, 옛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어지게 될 판이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근동에서 알아주던 소포리 풍물(금고)이 없어진 것도 노래방을 조직하게 한 원인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포리가 죽도 밥도 안된다. 옛날에는 소포리 풍물하고 소리를 제일로 치지 않았는가. 젊은 놈들이 객지로 다 빠져 나가버리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들이 소포리 소리를 되살려보자”고 의기투합했던 것이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방학 때면 수십명씩 찾아오던 대학

생들의 발길도 끊어졌고, 때가 되면 온 마을이 들고 일어나 벌이던 당굿까지 못하게 될 형편이었던 것이다. 노래방 ‘주인’인 한남업씨와 아낙들은 소포리 풍물의 상쇠였던 김홍연씨(한씨의 숙부)와 박병남씨를 선생으로 모시기로 한 것이었다.

소포리 아낙의 소리 공부는 명맥이 끊어질 뻔 했던 마을의 옛소리를 되살려놓았다는 상징적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호상제를 하던 때의 공동체문화가 그대로 되살아나 올 정월에는 모듬 세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월 초사흘날 마을 사람 모두가 한씨네 집 마당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다.

진도·홍석화 (자유기고가)

“남성 역할 대신한 민중문화의 전형”

나승만 교수 논문 <진도 소포마을의 노래방>에서 의미 부여

지 난해 진도 소포리 노래방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한국역사민속학회 '92 학술심포지엄에서 <진도 소포마을의 노래방>이란 논문으로 발표한 나승만 교수(목포대·국문학)는 소포리 노래방을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전승하고 생산하려는 민중문화의 한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나교수는 소포리 아낙이 호상제 노래방 노래재 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서 볼 수 있듯 여성의 주도력에 큰 의미를 둔다. “남성이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여성이 과거 남성이 수행했던 역할을 대신하거나 대신하려는 시도는 주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포리 노래방의 노래 재생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배우고 있는 노래가 과거에 실제 연행되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각기 특정한 시기와 기능, 그리고 공간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노래방을 통해 연행되면서 기능·시간·

장소와 유리되었고 이에 따라 음악성이 강조되는 한편, 사실에 비중을 둔 서사민요나 신세타령류의 흥글노래 전승이 단절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장단을 인식하는 데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현 노래방 사람들은 판소리 수업을 통해 얻어진 음악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악협회나 아리랑보존회 혹은 민요 경창대회에 참가하면서 영향을 받아 예전과는 달리 정격의 장단구조를 중시하고 있다. 나교수의 논문은 “노래방에서 생산된 노래가 소포리 사람에게,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수용되며 어떤 문화적 생산력을 배양시킬 것인가”하는 물음을 던지며 많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